

# 오푸스데이 단장 몬시 놀의 2019년 성탄 축 하 메시지

오푸스데이 단장 페르난도 오  
카리스 몬시뇰은 예수님의 성  
대한 탄생을 맞아 짧은 메시지  
를 보냈습니다.

2019-12-17

사랑하는 나의 자녀 여러분, 예수님  
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길 빕니다!

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우리는 성탄이 오기 전까지 하루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들의 내적인 즐거움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. 베들레헴의 그 목동들이 메시아를 알아차릴 수 있게 그들에게 주어진 표징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. “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우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,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.”(루카 2:12) 그곳에서 하느님의 그 아드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처럼 우리도 베들레헴의 그 단순함과 침묵으로 가까이 다가갑시다! 우리 아버지 이신 호세 마리아 성인께서 “내적 생활의 문지기” (길, 281항) 라고 말씀하신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.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 이끌려 베들레헴의 그 침묵 속에서, 새로워진 명확성으로 우리의 즐거움,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고통은 제 자리를 찾습니다.

여러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이  
매우 행복하고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  
길 바라며 애정이 가득한 축복을 보  
내드립니다.

로마, 2019년 12월 16일.

---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 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 
opuseudei-danjang-  
monsinyolyi-2019nyeon-seongtan-c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opuseudei-danjang-monsinyolyi-2019nyeon-seongtan-c/)  
(2026-1-31)